

2020년 국립전문과학관 유치 결의문



강릉시의회

「2020년 국립전문과학관」유치

결 의 문

과학관은 기초과학, 과학기술, 과학문화 등 과학과 관련된 전시물을 전문적으로 전시하고 각종 과학기술 교육프로그램을 개설하여 과학기술 지식을 보급하는 시설로서 현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진행하고 있는 국립전문과학관의 건립지로 강릉이 최적지임을 천명하는 바이다.

현재 전국에서 강원지역만 대형 국립과학관이 없어 지역 간 불균형 해소 및 열악한 지역의 과학문화인프라 확충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다. 더욱이 강원 영동권은 영서권에 비해 타 지역에 구축된 과학관과 접근성이 낮아 도내에서도 지역간 과학기술 격차가 매우 심화되고 있는 상황으로 청소년들의 꿈을 키우고 미래 인재를 키울 수 있는 과학 인프라가 반드시 필요하다.

더 이상 국책사업을 정치적 논리로 결정하는 구태는 근절되어야 한다. 지역균형발전이라는 지방분권의 근본이념 아래 지역개발의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심화되지 않도록 과학기술 전파, 확산을 위한 정부의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므로 강릉에 전문과학관이 설립되는 것이 이러한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해결책임을 강조한다.

현재 강릉시는 강원 영동지역의 지역 특성을 반영하여 우수자원인 해양과 레포츠 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첨단과학 기반의 전문과학관 구축이 절실히 필요한 현실이며, 4개의 대학교와 기업육성기관인 강릉과학산업진흥원 및 국책연구소인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등이 다수 설치되어 있어 과학관이 강릉에 설치되면 산·학·연 연결체계 구축으로 유기적인 협력이 가능하다.

이와 더불어 강릉시는 과학과 융합이 가능한 문화, 예술, 축제 지역 자원이 풍부하여 해양·레포츠를 테마로한 전문과학관이 설립되면 지역 발전에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 우리 강릉이 전문과학관을 성공적으로 운영할 최적지가 아닐 수 없다.

이에 우리 강릉시의회는, 지역 강점을 살린 차별화된 「국립전문과학관」의 강릉 유치를 통해 강원 영동권의 과학·문화 수준을 격상시킴과 동시에 국가 균형발전을 촉진하고자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국립전문과학관」의 강릉 유치를 위해 시민역량을 결집한다.

하나, 강원 영동권의 과학기술발전을 위해 적극 노력한다.

하나, 「국립전문과학관」 유치 시, 과학관의 발전을 적극 지원한다.

2020. 5. 12.

강릉시의회